

이름: 최수빈

이메일:

나이: 17

직업: 학생

거주지역: 경기도 안양

본 행사 참여경험(우측 해당란에 √ 체크해 주세요): ☐ 2013 ☐ 2014 ☒ 처음 참여

반복되는 일상속에서 특별한일을 골라 알릴 쓰는것은 매우 어려운일이지만, 매일쓰다 보면 그것도 습관이 되어서 쉬워진다. 매일은 아니지만, 드문드문 알기에 내생각이나 내일상 쓰는것을 좋아해서 일기쓰는건 어렵지 않지만! 매상 일변뒤에 이내용을 다시 받아야한 다는 생각에 쓰기어려워진다ㅠㅠ 그러도 음.. 어 오늘 하교를 평소보다 조금 늦게했다! 원래 6세반에 일기내서 하교도착하면 8시쯤되는데 15분쯤에 하교해서 매정에서 코코보..인가 뷔찌 먹으면서 반이였다! 늦게가도 반이몇명있어서 책개내서 공부하느적ㅋㅋ.. 음했다. 요즘에 꿈이 화성탐사병이거나 공부해야하는 이있고 알겠고, 왜중요한지도 알것같다. 7년뒤에 꼭 NHN인턴 테이먼트 기획자로 들어가있으면 좋겠다. 아니 꼭간다ㅠㅠ 어.. 음.. 하교에서는 별일없었고 그냥 요즘 하교때느끼 너무재밌다 여전엔, 왜 진정한 내편이 있을까 내내 이기 못냈을까 하는 생각이 깊은 밤에보여도 남모르게 많이 힘들었는데 그냥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세상이다 내편같은 재미있다! 왜이리 힘들게생각했을까??? 그냥 앞으로 긍정적으로 살 아야겠다. 음 그리고 중1때 나랑 맨날사귀던 남자애랑 연락했는데, 전과와서 연락안할 줄알았는데 남자애중에서 제일 많이하고 걱정도 많이하고 하느것같다. 미운정 쌓여서 그런거같다 ☺ 누구든 연락하고지내야지. 사이 안좋아도 짜지 않으면 미운사람하나없는 거같다. 다른사람이 생길때 난 어떤사람일지 궁금하다! 그냥 필연할때만 찾는 사람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ㅠㅠ 항상 진심으로 대해야지! 항상 고마운마음으로 살아야 겠다 ☺ 근데 아까형아 한테 포자공냈다는.. ☆ 언제 철들까 ㅠㅠ 일년뒤에 나는 좀더 성숙해있음 좋겠다!

홍익사 111111

"5월 12일 일기 수집 이벤트"는 인간과 기억 아카이브와 영국 서섹스 대학교의 대중관찰아카이브 (MOA: Mass Observation Archives)가 공동 주최하는 역사프로젝트입니다. 기증하신 일기는 21세기 한국인의 삶과 문화를 기록화하는 중요 자료로써 학술연구와 교육, 전시, 출판 등 문화 콘텐츠로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귀하의 콘텐츠 공개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 네, 동의 합니다.☐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문 학술연구진만 제 일기를 볼 수 있습니다.온라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http://omeka.hmarchives.org/>